

잠실교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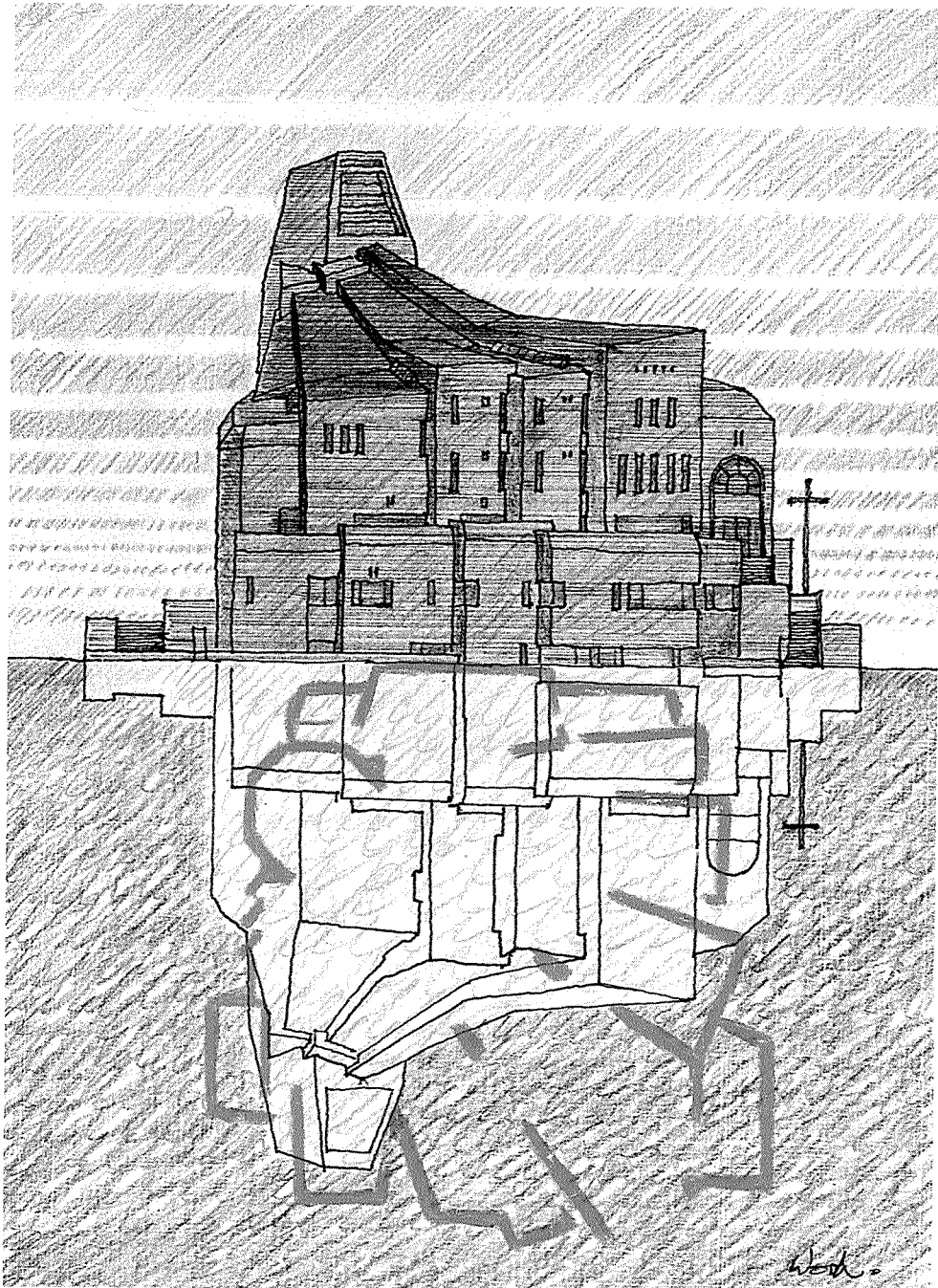
禹時庸 / 종합건축사사무소 시공

하느님의 집을
연구소 시작의
첫 작품으로
바친다.

당회장
원광기목사님이
정성스럽게
부탁한 일.
기도하며
생각을 가다듬고
정리한다.

대지와
주변환경과
앞으로의 교회의
지역사회에
기여하는
역할에서
이미지를 얻는다.

큰 교회를
작고 아담하게
느낄 수 있도록
거부감을
주지 않게
Mass를
잘게 쪼갬다.



잘게 쪼개진
Mass가
내부에서도
느껴지게 한다.

제단부분으로
상승하는
회중석의 천장과
제단의 십자가로
떨어지는 빛이
본당의
중심이 된다.

본당으로 올라가는
긴 계단에서
신도들은
심신을 가다듬고
십자가를 본다.
신체가 불편한
신도를 위한
경사로를 둔다.

붉은 벽돌을
한장씩
정성들여
쌓는다.

